

속 죄 (레위기 4:1-12)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모를때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좁았던 것 같다. 그때는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교회의 헌신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난 뒤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영적인 느낌, 눈,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때는 영적인 것 이야기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사단 귀신 이야기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츰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그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전에는 거의 육신적 생각에서 끝났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복음을 알고 나니 우리의 기도가 산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도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 이유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전도를 할때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이야기 했다. 그런데 포인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답이 안되는 것이다.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성경의 지식이 왜 필요한가? 성경 말씀을 해도 자기 문제에 답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 사람이 말씀 따라오지 성경 자체를 말해줘도 오히려 열받아서 난리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용이 확실해 지니까 전도할때도 쉬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니까 인생이 참 쉽고 간단해진 것이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나 우리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이다. 전에는 이런 단어 잘 몰랐다.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기는 알았다.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커지고 인생이 커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선교에 대해 한번씩은 생각했다. 그리고 먼나라 선교 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가 정식으로 언약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다른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다른 나라를 가냐라고 생각했다. 서울도 잘 안갔다.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것은 부산은 안되는구나. 사람이 살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 생각 해도. 가능하면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크게 산다. 전에는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인생 커지고, 기도 커지고 마음이 넓어진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졌다. 그래서 영안, 영적문제, 영적 전쟁 너무나 당연하다. 전도, 제사, 선교, 미국,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남미 끝까지, 렘넌트, 너무나 당연한 단어가 되었다. 전에는 이런 것 없었다. 나는 그랬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제법 관찮은 신자였다. 그래서 여하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속죄

죄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세상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른다. 죄를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세상은 모른다.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단어를 모른다. 후 단어를 알고 있어도 복음을 통해서 체험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단어이다. 왜냐면 이 죄가 해결 안되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받았다는 것은 저주에서 나왔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죄 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다.

사람은 원죄 이후에 누구든지 죄인이 되어 버렸다. 죄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에 잡혔다는 말이다.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 이전에는 저주가 없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전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죄사함. 이 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것을 완성하셨는데 오기시 전에도 이 모형을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4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제사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것을 보면 회중이,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 놨다. 그리고 족장, 각 지파의 대표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써놨다.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도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약속의 피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9:22절에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제사의 중심은 언약의 피이다. 그리고 그 기름들, 기름을 떼어서 태우라는 것이 화목제와 같다. 그런데 화목제와 다르게 하나 있는데, 기름과 피를 제거한 나머지 모든 제물, 수송아지의 모든 것을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전부 태워버리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와 가축과 고기와 머리와 경강이와 내장과 12절에는 동,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다 그곳에서 불사르라고 하였다. 진영 밖, 살고 있는 곳 바깥으로 가서 전부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죄는 다 태워 버리는 개념이다. 언약의 핵심인 피와 기름은 따로 하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제사드리는 사람의 화목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 고기를 먹는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싹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하였다. 오늘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영문 밖, 곧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이다. 이렇게 사실 줄을 알고 구약시대부터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주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종류중, 세 번째를 보는데, 대부인의 제사가 대동소이다. 예를 들면 제사드릴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피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뿌려야 하고 기름을 떼어서 태워야 하고 다른 제사에서는 번제같은 경우 각을 떼서 태워야 한다. 고기하고 기름을 분리해야 하고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물 전체를 전부 태워서 드렸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를 먹는 의식이 있었다. 속죄제는 죄를 다 태워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태워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문밖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주시시켰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 육신적으로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고 저주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유 알고 있고 전쟁할수 있는 힘과 답이 있다.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승리하고 증인되는 것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 해 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이다. 당연히 남은자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순례하며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정복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 바란다. 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언약을 잡고 계속 고백해야 한다. 계속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이 언약의 대열에 서라.

죄사함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은 언약의 대열에 서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있어야 한다.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이다.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축복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실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고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만일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사람이 천지도 모르고 아브라함 하는대로 따라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따라서 가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많이 있었다. 전쟁할 때 318명 자기 집에서 훈련한 종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다. 아브라함의 그 31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식구가 천명정도 되었다고 계산한다. 그 천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 받았다. 아브라함 따라서 다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단 쌍을 때 같이 쌍았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그 때 할례 받고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바로 그날 할례를 행했다고 하였다. 그 구원 받았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따라가면 복을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것이 그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이다. 요셉에게는 꿈을 줬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 따라갔다면 구원 받는 것이다. 모

세에게 어느날 호렘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이방인이 다른 민족이 생각하고 나도 간다 하고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 받는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할 것이다. 어느날 한나에게 이야기 했다. 사무엘 같은 나실인이 필요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 만나서 이야기 했다. 이방인,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바울에게 말씀 받은 이방인이 구원 받았다. 사무엘에게 말씀 받은 이상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 당시 누가 최고로 애국자였는가? 최고로 뛰어난 장군도 애국자였을 것이다.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데 나라를 지켰다. 그것이 언약이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냐면 복음 가진 사람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미국 현지 교회는 이상해지지만 들어와 있는 이민교회가 미국을 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말씀에 놓았다. 더 받을 것도 없다. 이미 말했었다. 그것이 부활 메시지 4개이다. 이것을 세단어로 요약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마태복음 28장 너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세워라고 했다. 마가복음 16장은 사람을 살려라, 치유로. 그 말이다. 요한복음 끝에는 내 어린양 렘넌트를 키워라 이 말이다.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너 땅끝까지 237 복음 전해라. 선교. 성경의 결론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세상을 정복했다. 당연히 자기 인생 살아난다. 이게 언약이다. 이 언약의 대열에 서야 한다. 이런저런 말이 많고 이유 있을수 있다. 그거 다 던져버리고 말할 해도 여기로 가면서 말할 해야 한다. 이것은 안하고 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다. 말 팔요 없고, 이 시대의 언약이 네가 부활메세지가 맞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인생 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나? 영원히 지옥구덩이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 참 감사하다. 우리를 이렇게 건진 하나님에게 소원이 딱 하나 있는 것이다. 그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부활메세지 4개는 예수님이 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에 살고 간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자신의 현장을 다 정복했다. 자기의 개인 인생도 살리고 승리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안하고 자꾸만 응답만 주라고 하니 하나님도 답답한 것이다. 이미 답은 다 주셨는데 말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메시지 4개.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100지교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남미 선교만을 위해서 100팀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울은 교회 7개 개척했다. 바울의 목표는 그 교회만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살리고 로마 살리고, 이것이 사도바울의 목표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 언약을 딱 잡고 그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개인만 살리게 아니다. 시대를 살린 것이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뭔가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 느낌이다. 무엇인가 자꾸 그렇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저항해야 한다. 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도 해야 한다. 그냥 코로나라고 해서 숨어버리고,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는 아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쟁하고 뭐가 틈을 노리고 해야 한다. 지난 주일에 든 생각은, 결국 지난 주일에도 첫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른들은 괜찮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다.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해버리면 아이들에게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핑계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육신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면 이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지금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분명 사람들이 적게 온다. 분명히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만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 마스크 끼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오는 것이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만 오니까. 이거하고 코로나니까 교회 안가지, 아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냐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고 여기에 평생을 걸라. 땅끝까지 이르러 치유함으로 사람을 살려라. 병든자에게 손을 올리면 낫게 할 것이라고 말했잖아. 니가 니 후대를 안 키우고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을 살려라. 아이들을. 그리고 니 인생과 가정과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여기에 눈을 열고 생명을 걸으라고.. 너 돈 없는거 알아. 니 형편에 맞게끔 네 마음을 담아라. 거기에. 분명히 코로나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 되는 것도 있다. 내가 남미에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일주일마다 세 번 한다. 만일 줌으로 하는 이런것들이 시스템이 잘 서로가 통하지 않았으면 2년동안 놓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진짜 잘 되었다. 너무 잘 되었다. 그런데 선교 외에, 교회는 모여야 한다. 일주일에 몇 번은 모여야 한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코로나가 안 좋은 것이다. 여주상 목사도 교회의 일을 의논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그럴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도 분명히 영적으로 연합한 바깥에 있는 분들부터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예사로 되어지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코로나가 영향을 안 줄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한다 했다. 못 모이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문화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 버린 것이 개인주의이다.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독재이다. 그러면 안된다.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서 이 개인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버리면 그것이 병인 것이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독재이다. 우리가 잠시 후에 공동의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에 이미 딱 나와 있다. 교회는 어디로 가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결정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 가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해 많이 한다. 코로나도 그중에 하나이다. 좋은 것은 활용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 언약의 대열에 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진짜 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캠프 중이다. 캠프 그냥 괜히 하는 것 아니다. 그냥 복음 전하자 이경도가 아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캠프가 되어서는 안된다.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문이 이 대열에 서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계속 심어야 한다. 참 묘한 일이다. 어릴 때 말로 아이들에게 그냥 심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그것이 심겨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이 복음을 계속 심는 것이다. 그대 놓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다.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마음에 언약을 깊이 담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 마음에 언약이 담겨 있으면서 노력이 없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번 노력으로 해봐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 알고 있으니까 노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내 노력이다.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문 안 열면 소용없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줄로 생각했다. 지금은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문 안 열면 돈도 못쓰는 것이다. 돈 있다고 길거리에서 돈 뿌리고 다닐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면 돈 있어도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를 세워주세요. 이것이 일번 기도제목이다.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축복해서 돈 대게 해주시는 것이다. 일단 이 대열에 서라는 것이다. 무엇이 인생을 살리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했으면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유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일단 가는 것이다. 말할 해도 가면서 말할 하는 것이다. 가지도 않고 말만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말했으면 갈려고 발을 댄 사람만 살았다.

우리는 진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저주에서. 이것이 한번씩 말하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라. 다 안 맞을수도 있다. 틀릴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다 맞다.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리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 내주었구나 인식이 되어서 너무 감사가 나올 만큼만 들어보라. 메시지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 그런 것 한번씩 들어보면 참 고되다. 무슨 참고가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참고가 된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언약 대열은 237, 치유, 서밋이다. 계속 제자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 치유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세월이 갈수록 치유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 해야 한다. 렘넌트들 잘 키워야 한다. 그리고 선교해야 한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가꾸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는 다른 나라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7개에 계속 메시지 보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다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비밀, 방법이 바로 말씀, 메시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발견한 자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세상이 해치지 못했다. 위기가 역전되어서 기회가 되어 버리고 축복이 되어 버리는 것 많이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올해 2022년에 크게 일어나기를 축원한다.